

# 블소2 vs 제2의나라 vs 오딘... 막 오른 '신작大戰' 승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넷마블·엔씨·카카오, 출격준비 완료  
게임별 특성 다르지만 경쟁 불가피  
'리니지' 추격, 글로벌 성적 등 귀추

신작 게임들이 6월부터 몰려온다. 장르도 다양하다. '리니지' 형제 시리즈의 아성이 위협받을지 게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는 회사는 넷마블이다. 넷마블의 '제2의 나라'는 감성 모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오는 10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제2의 나라는 2016년 모바일 게임시장의 변화를 이끈 '리니지2 레볼루션' 핵심 개발진의 두 번째 작품이다. 3여년 개발 기간을 거쳐 내달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5개 지역에 동시 출시한다.

이 게임은 레벨라이브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업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모바일 RPG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스토리와 지브



'오딘 발할라 라이징' 정식 출시 이미지.

/카카오게임즈

리 철학이 담긴 세계관을 그렸다. 특히 세계적 거장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더해져 눈길을 끈 바 있다.

최근 넷마블은 제2의 나라에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드를 개발해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제2의 나라 AI 모드는 서버의 로직이 캐릭터 AI를 제어해 서버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도 캐릭터는 게임에서 활동을 한다.

미래에셋증권 김창권 연구원은 "제2의 나라는 레벨라이브와 지브리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RPG 니노쿠니 IP를 기반으로 제작했기에 일본 시장에서 흥행 기대가 높은 게임"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기대작 '오딘: 발할라 라이징'도 오는 29일 정식 출시를 앞뒀다. 오딘은 '블레이드' 시리즈로 유명한 개발진이 함께하고 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을 구현해 거대한



제2의나라 대표 이미지.

/넷마블

대륙을 구현한 오픈월드를 마련했으며, 언리얼 엔진4와 3D 스캔을 적용했다.

엔씨소프트도 이르면 이달 말 신규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2012년 출시된 PC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의 차기작인 '블레이드앤소울2' (블소2)다.

지난달 말 출시한 올해 첫 신작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트릭스터M'이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

스토어 매출 1위 및 양대 앱마켓 인기 1위를 달성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얻으며 '블소2'가 기세를 이어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사전 캐릭터 생성을 시작한 블소2는 처음 준비한 48개 서버가 3시간 만에 마감돼 추가 서버를 오픈하는 등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신작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시돼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아성을 새로운 신작이 깰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며 "신작들의 특성이 제각각이라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낼 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T맵서 전기차 충전 검색·예약·결제 '척척'

티맵모빌리티, EV 기업·기관과  
하반기부터 전기차 특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차(EV) 충전소 상태 조회,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티맵모빌리티는 국내 주요 EV 인프라 기업·기관들과 함께 전기차에 특화된 T맵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전기차 특화 서비스는 ▲충전소 최적 경로 탐색 ▲실시간 충전소 상태 조회 ▲충전소 리뷰·피드백 ▲대기시간 예측 ▲충전 간편결제 ▲EV 멤버십(구독형 서비스) 등이다. 기존 T맵 내비게이션 내 '내 차 정보'에 전기차를 등록해 놓으면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티맵모빌리티는 주요 EV

인프라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구축에 돌입했다. 티맵모빌리티는 국내 급속·초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대영체비와 실시간 정보 연동과 PnC(플러그&차지) 등 충전 기능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PnC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 연결 즉시 자동으로 인종과 결제가 진행되는 간편 충전 솔루션이다.

/김나인 기자

한화테크윈

독도에 영상보안 솔루션

한화테크윈이 독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해상도 CCTV를 운영한다.

한화테크윈은 서도 주민 숙소 옥상과 동도 헬기장에 CCTV를 설치, 독도와 근해의 재해·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영상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독도의 상징성을 고려해 해당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국민 누구나 독도의 풍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지난해 한화테크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8K 초고해상도 네트워크 카메라다. 8K 해상도는 약 150m 거리에 있는 사람의 인상착의는 물론 표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디지털 줌을 통해 영상 내 어떤 영역을 확대해도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넓은 영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환경에 적합하다고 한화테크윈은 설명했다.

카메라 1대로 광범위한 지역을 고화질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독도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다양한 영상 분석 기능들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 SKT, 블록체인으로 위험구조물 진단한다

블록체인 '이니셜', IoT에 적용  
국내 최초 '사물 DID 서비스'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분산신원확인(DID, Decentralized Identifier) 서비스를 시작해 본격적인 사물 DID 시대를 열었다.

SK텔레콤은 자사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 기술을 사물인터넷에 적용해 건축물의 고유식별자를 확인하고 위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사물 DID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DID는 온라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다. 그동안 개인의 신원 증명을 위해 이용됐는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사물의 식별자 확인에도 이용 가능하게 됐다.

SKT는 시티랩스, 씽크제너레이터, 지노시스, 방재시험연구원으로 구성된 '시티랩스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사업에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1년 블록체인 시범선도사업으로 지

정했다. 시티랩스 컨소시엄이 중량구형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SKT는 시티랩스 컨소시엄에 '이니셜'의 DID기술 지원을 통해 건축물의 DID 구현과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후건축물의 기울기 및 크랙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기존 노후건축물의 안전진단 수행 시에는 불특정 안전진단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다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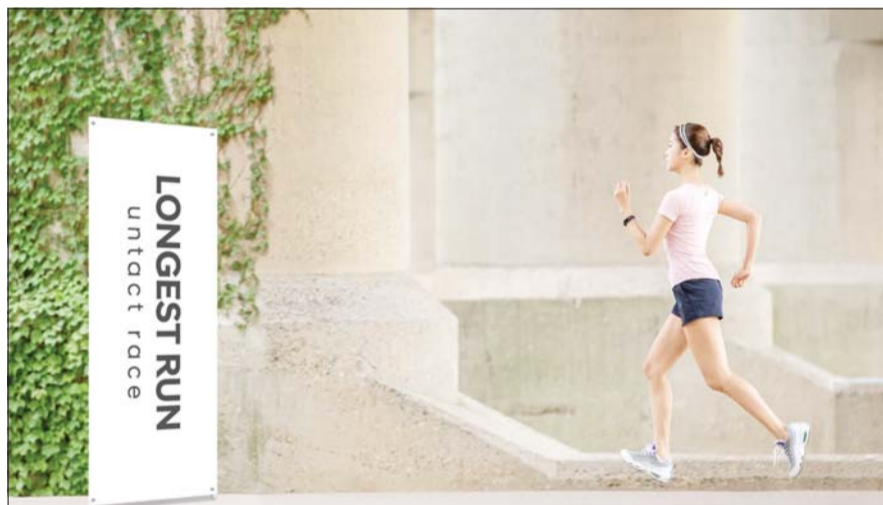
'이니셜' DID 기술은 다양한 IoT 디바이스에 사물 DID를 부여할 수 있어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시 위·변조 위험성이 없고 진본 데이터 확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니셜'은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단말에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저장, 제출하는 서비스로 위·변조 및 진위여부 검증 등에 있어 높은 보안성을 갖춘 서비스다.

/김나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 '2021 롱기스트 런' 캠페인.

## 현대차 "달리면서 환경에 기부하세요"

친환경 캠페인 '롱기스트 런' 실시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 '2021 롱기스트 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롱기스트 런'은 현대차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누적 참가자 약 150만명을 넘어서며 대표 친환경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언택트 레이스' (비대면 달리기)라는 차별화된 마라톤 대회를 도입해 러너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내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2021 롱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전용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달리기, 친환경 미션 등에 참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021 롱기스트 런' 캠페인 '언택트 레이스'는 7월 9일부터 10일간 원하는 코스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의류 기부 참여, 유료 패키지 구매 기부 참여 또는 무료 참가가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6월 7일 오후 2시부터 6월 20일까지 '롱기스트 런 앱'을 이용해 ▲의류 기부(선착순 300명) ▲유료 참가(선착순 3000명) ▲무료 참가(참가인원 제한 없음, 신청 기한 7월 9일까지)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LGU+, 중소기업자 위한 'U+통화매니저'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위해 'U+통화매니저'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U+통화매니저는 매장에 걸려온 문의·상담 전화에 대한 정보를 연동된 PC로 확인시켜주는 서비스다. 과거 통화 이력 및 문의·상담 내용 등을 한 눈에 보

여준다.

LG유플러스는 서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 안정성을 높였다. 사업장 내 네트워크 환경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PC가 꺼지더라도 24시간 통화 이력 및 예약 기능을 관리할 수 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김나인 기자